

일본의 산지직거래 사례

- 치바현 다코마치 旬の味産直センター(순노아지산초쿠센터)를 중심으로 -

1. 센터개요

- 센터명 : 농사조합법인 타코마치 순노아지산 초쿠센터
- 설립연도 : 1987
- 위치 : 치바현 카토리군 다코정 츠키우라 1350번지에 위치하며 나리타공항으로부터 가까운 북중지대로부터 99리 해안선까지의 광대한 평지에 위치.
- 생산농가 : 500농가
 - 야채재배 200농가(정 조합원), 쌀 재배 300농가(준 조합원)
- 설립목적 :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일본의 농업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
- 추구방향 : '우리 마을을 도시민의 농촌으로'라고 생각하는 농민과 '몸도 마음도 편안한 참된 여가'를 찾는 소비자 사이를 제철의 야채와 유기재배 쌀을 통해 두터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음.
- 지역특성
 - 치바현의 채소 단지 중 최대의 산지임.
 - 바다 인접지역이며 기후가 온화해 12월까지 노지재배가 가능하고, 시설하우스에서 토마토, 꺾임,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
 - 화산회토 지역으로 근채류(당근, 무, 우엉 등)와 엽채류가 잘 자라는 농업의 적지임.
- 전업농(대농)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주로 생협에 출하하고, 중소농(여성중심)은 소량 다품종의 채소를 재배해 택배를 통한 'set채소' 재료로 납품.
- 참여사업
 - 朝市
 - 생협 직거래
 - 학교급식 : 급식은 교육이란 생각으로 접근하여 식재료 납품.
 - 시민농원(도시민 주말농원) 운영.
 - Set 채소 택배 : 양파, 오이, 꺾임, 自然卵 등을 묶어서 아침에 냉장 택배로 도시 소비자에게 배달.
 - 쌀의 산지 직송
- ※ 쌀 재배의 원칙 : ① 맛을 고집하는 토양관리(유기비료 사용), ② 안전을 생각한 재배(농약사용 억제), ③ 맛 지속 저온저장(전용 저장고에서 저온저장), ④ 농업과 환경 지킴이 역할(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직산에 의한 쌀 증산운동 실시).
- 교류센터 : 牛舎를 리모델링하여 건립했으며, 학생과 생협소비자의 영농 및 수확체험 등도 농교류활동 및 귀농희망자(귀농 인턴)의 숙소로 활용.
- 생활정보지 「しんの味畑」 발간 : 1994년 봄부터 연 4회 발간.
- ※ 지금까지 직거래는 농산물 교환만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에는 풍부한 농산물과 훌륭한 자연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 이러한 잇기 쉬운 농촌의 자원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농민들의 드러내지 않는 노고와 농심, 꿈 등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음. 또한 농업정책이나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교급식 등 음식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도 매회 다채롭게 다루고 있음(1권 250엔, 연간 1,000엔에 정기구독).

2. Set 야채

○ 사업구상 : 1997. 2월 직거래 센터 설립당시부터 구상

- 소비자에게 직접 직송하거나 생협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 구상하게 된 계기는 농산물 판매는 대개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협은 대량 농산물을 수매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중심의 중소농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따라서 지역민이 스스로 도시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채소세트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민들이 텃밭을 늘려서 도시 친척들에게 세트(계절별 구색을 갖추어 7~8품목)로 모아 보내주던 것을 응용한 것으로 이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산지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음.

○ 어려웠던 점

- 소비자는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채소를 원하고 있으나, 노지재배에 의존하던 현지에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음. 그러나 현재는 옆채, 근채, 과채류 등을 계절에 맞게 작부체계를 수립하여 균형 있게 생산해 공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많이 소비되는 채소가 10종류 내외이나, 이 지역에서는 80가지 품목을 계절에 상관없이 보내줄 수 있으며 이것이 크게 도시민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연도별로 풍작이 되는 작목이 있어 이의 소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를 들어 무가 풍작이 되어 한 뿌리 보내달라는 때에 무료로 두 뿌리를 보내준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도 크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음(생략도 가능).
- 유기재배 표시가 까다롭고 미묘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비닐 포장에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

※ 환경농업 등은 엄격히 규제하여 표기하지 못하고 팜프렛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전부임.

- 퇴비센터가 있어 80~85%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쌀과 채소의 당해연도 작부체계가 수립되면 생산자에게 보내줌.

- 농약 문제

- 작물별 시비할 수 있는 농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살포시는 반드시 기록하고 PC나 휴대폰을 통해 사무실에 전송하여 기록으로 남김.
- 언제 어떤 농약을 썼는지 가장하고 있음.
- 산지 직송센터에서는 작부체계와 농약시비 등이 중요 시스템임.

- 생산이력제 등 품질관리

- 일본 생협에서는 생산이력제를 확대한 개념인 품질보증시스템 및 위생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
- 생산이력제 등 위생관리까지 기록하는 번거로움으로 농가에서는 공황상태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Set채소의 운영 노하우

- Set채소 박스를 열었을 때 계절감을 느끼게 함.
- 여름에는 채소모를 넣어주고 여기에 물만 잘 붓고 관리하면 어렵잖게 재배할 수 있게 함.
- 보리수확 계절에는 보리이삭, 가을에는 갈대 등을 넣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 보리이삭을 넣어 보낸 후에 도시민으로부터 dry flower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감사편지가 온 사례가 있듯이 농산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 많음.
- 포장 내에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통신문(전통채소, 새로운 채소의 요리방법 등)을 넣어 보냄으로써 생산자와 산직센터 및 소비자 간의 신뢰와 정을 느끼고 연결의 역할을 함.
- 육류는 다른 지역(카나가와 산직센터)에서 공급받아 배송.
- ※ 치바현에는 6개의 산직센터가 있으며, 이들이 연합하여 이 곳에 사무실을 개설·연대하여 농산물을 공급코자 추진 중임.
- 배송은 주로 '야마토 택배편'을 이용해 부담을 줄이고 야간택배 가능함.

○ Set 채소 가격

- 야채코스(3~4인 1주일 기준) : 야채 7종 + 계란 6개 ⇨ 2,100엔(냉장 택배비 700엔 포함), 매주, 격주, 월1회 토요일이나 화요일 배송.
- 미니세트코스 : 야채 소량 7종 ⇨ 1,500엔(냉장 택배비 포함), 매주, 격주, 월1회 금요일만 배송.
- Set 종류가 12가지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맞춰 포장 배송.

○ 연간 매출액 : 15억엔

- 야채 판매 : 10억엔 (Set야채 4억엔, 생협판매 등 기타 6억엔)
- 쌀 판매 : 5억엔
- 홍보, 회원모집 및 신청방법
- FAX나 전화가 주요 방법이며, 인터넷 이용은 적음.
- 초기에는 홍보했으나,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안하고 홈페이지나 입소문을 통해 홍보하며, 홍보를 굳이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음.

3. 학교급식

○ 「교육으로서의 급식」이란 생각에서 직거래 급식 출발

※ 진짜 당근의 모습

- 1987년 급식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도쿄로 부터 잎이 붙어있는 당근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있었음.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당근의 원래 모습을 보이려고 기획한 것임. 며칠 후 센터에 아이들의 그림과 작문이 도착되었으며, 모두가 당근의 진짜 모습에 놀랐고 당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이었음. 「당근의 잎을 본 것은,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당근이 나오는 날, 예전엔 싫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먹습니다. 그리고 먹어 보면 맛있기 때문에, 누가 이 당근을 재배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더 먹습니다.」등.

※ 급식은 교육이다

- 잎이 붙어있는 당근이나 배추벌레가 있는

양배추를 아이들에게 보내면, 생산자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감격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음. 또한 채소와 함께 농가 자필의 편지(생산자 카드)를 구내방송으로 소개하여 주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가에서도 한층 더 안전하고 보다 좋은 야채생산에 유의하는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음. 급식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평상시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 식생활 문화나 농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임. 그것이 급식 직거래의 장점이라고 생각됨.

- 슈퍼마켓에 납품된 채소는 마른 잎은 잘라내고 흙을 털어 내버리는 등 잘 정리되어 상품화한 것으로 본래의 채소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에게 농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종목별로 한가지씩은 뿌리, 줄기, 잎 등을 자르거나 변형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

4. 「와타시노담보(나의 논)」 오너 제도

- 시행 경위
 - 1993년 쌀의 대홍작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식량관리제도를 폐지해 신 식료법을 제정하여 쌀 수입의 길을 열어, 일본의 벼농사 농업의 붕괴위기가 도래하였음.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제대로 손잡아 일본인의 主食인 쌀을 지켜가기 위해, 1994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벼농사를 시작.
 - 시민농원 「나의 논」에서 <당신도 벼농사를...> 이란 구호로 시민농원 방식에 의한 완

전히 새로운 방식의 쌀의 계약재배 시작.

○ 이용방법

- 센터가 대리인이 되고, 농원개설자(생산자)와 이용자(소비자) 간의 이용계약 연결을 하며.
- 소비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연3~4일 정도 산지를 방문하고(예를 들어 모심기나 벼 베기, 수확제 등의 이벤트 시), 일상의 관리는 개설자인 농가가 직접 실시.
- 1,000㎡의 논을 8구획으로 나누어 125㎡를 1구좌로 계약.
- 1구좌에서는 연간 약 60kg의 쌀을 생산하여 센터가 위탁받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월1회 精米 후 택배로 전달(1개월 5kg).
- 1구좌 이상 신청 가능하며, 이용료 지불방법은 신청 시에 이용료의 12분의1을 입금 받아, 잔금은 「신청서」도착 후(입금을 확인 후) 송부하는 송금용 「시민농원 이용요금 지불서」에 8월 15일까지 입금.
- 기본적인 요금은 1구좌(125㎡, 쌀 약 60kg)을 1년간의 계약으로(5kg×12개월).

백미의 경우	매월 5kg의 배송으로 월액 2,500엔
무세백미의 경우	매월 5kg의 배송으로 월액 2,600엔
현미의 경우	매월 5kg의 배송으로 월액 2,500엔
무세현미의 경우	매월 5kg의 배송으로 월액 2,600엔

5. 지역 축제개최

- 「브라브라(터벅터벅) 신노미(텃밭) 축제」-
 -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촌의 평온함과 농업의 소중함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

- 이 마을은 100호 정도이며 양해를 얻어 20호 정도에서 향토요리를 먹는 Slow food 체험여행 행사를 개최(농가정원에서 향토요리 시식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역할을 함.
 - 7, 5, 3세의 아이들이 神社를 방문하여 건강하게 키워달라는 일본 전통의식과 행사를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11월 13일).
 - 2005년도는 9농가가 참여하고 1,0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식혜, 산채, 국수, 만두 등을 시식.
 - 참가비는 어른 1,500엔, 어린이 700~800엔이며 참가비만 내면 행사 참여 아무 농가나 들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음.
 - 나리타 전철역에서 마을까지 왕복교통편(셔틀버스) 제공하며 마을 노인회 적극 참여
 - 마을에서 일본 전통혼례식을 개최하였는데, 농촌총각이 결혼하기 어려워 신부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6. 주요 관심사항

- 학교급식
 - 지산지소 개념으로 급식을 추진하여, 동경 소재 학교에 급식함.
 - 학교 급식 시에 옥수수를 급식한다면, 아침에 수염이 붙어있는 채로 가져가고, 옥수수대를 한개 가져가 재배농민이 설명하고 학생들과 껍질을 벗겨 삶아먹는 학습을 함. 즉, 농민이 일일교사가 됨.
 - 학교 교육용으로 양배추에 벌레 알이 붙어
- 있는 것을 보내주며, 알이 부화하여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일기로 쓰기도 함. 이러한 요구까지를 직거래센터에서 수용하고 있음.
- 학생들의 영농체험
 - 매년 300명의 학생들이 영농체험을 위하여 찾아오며, 모내기, 대나무 죽순 캐기 등을 실시.
 - 아이들에게 먹거리와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食育體驗)을 실시하며, 별도의 우사를 개조한 교류센터에서 시행.
- 생협과의 관계
 - 공동구매하여 생협에서 회원에게 택배 공급하기도 함.
 - 생협조합원(도시소비자)이 수확체험을 하기도하며, 이 지역이 동경에서 가까워 당일체험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일본의 생협은 縣단위였으나, 사업을 연대하여 동경, 치바, 사이타마, 이바라기 등 단위가 커져서 대량생산을 앞으면 공급하기 어려운 형태임. 이런 조건으로 인해 공급조건이 많이 변했고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과거에는 5가구 정도의 모임으로 나누어 이용하였는데 현재는 개인별로 택배를 통해 보내야함.
 - ※ 일본의 생협 인구는 2,480만명으로서 매출은 3조2천30억엔.
 - ※ 일본 생협회원의 특전은 배당을 받고 각종 event에 참여 등.
- 생산자인 농민에게 좋아진 점.
 - 산직센터가 없었을 때는 고구마재배 정도가 고작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농산물을 다 모작 재배하여 경제적 효과 커졌음.

- 채소재배 농가 100호가 농협출하 시 1,000만 엔의 수익이던 것이, 센터에 출하하여 5,000만 엔의 소득창출 경제효과.
- 특히, 지역 노인이 좋아하며 마을이 활기찬 분위기로 변화.

7.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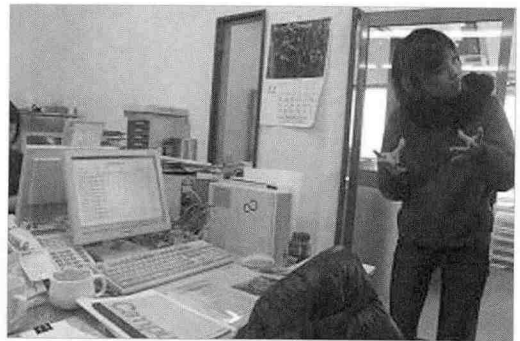
- 농산물 직판을 통한 효과.
 - 영농규모와 재배작목에 따라 판매경로를 차별화하여 소득 증대.
 - 大農(전업농)은 대량생산하여 농협이나 생협에 출하하고, 중소농(여성중심)은 소량 다품목 생산으로 Set채소 재료로 납품.
 - 유기재배한 계절의 채소와 쌀을 적시적량 공급함으로써 도시민과 농민의 두터운 신뢰와 상생의 연결고리 생김.
- 다양한 사업의 전개를 통한 시너지 효과.
 - 아침시장, 생협 직거래, 학교급식, 시민농원(주말농원) 운영, Set 채소택배, 쌀 산지직송, 교류센터 운영, 생활정보지 발간, 마을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도농교류 및 상호간 신뢰 확보.
- Set 채소방식의 운영 노하우.
 - 소량 다품목의 다량 출하로 다량의 농산물 수급.
 - 유기비료, 친환경농법 및 생산이력관리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요리법 소개한 통신문과 계절을 느끼게 하는 모종, 보리이삭, 갈대 등을 동봉해, 농산물의 단순택배가 아니라 농촌의 계절감을 도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신뢰와 정을 돈

독히 함.

- 학교급식을 학생의 식생활문화 및 농업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
- 나의 논 오너제도의 효과.
 - 농민에게는 영농자금의 사전 확보와 판로걱정 없는 안심농사를, 도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 확보를 가능케 함.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전 최동주 사무총장이 2005년 12월 농특위원회들과 순노이지산초쿠센터를 방문 했을 때 정리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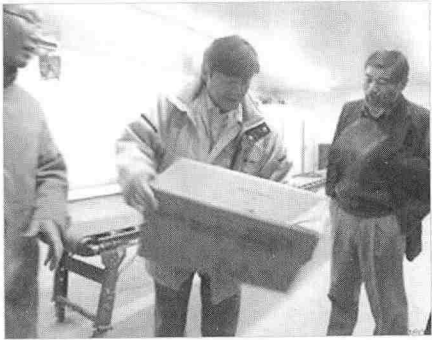
8. 순노이지산초쿠센터 전경(사진)



▲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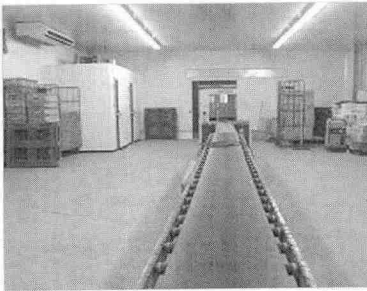
▲ 세트 채소 박스와 내용물



▲ 원터치 방식 세트야채 박스의 설명-다카하시 현조합장



▲ 고구마 포장 방법



▲ 포장 농산물 컨베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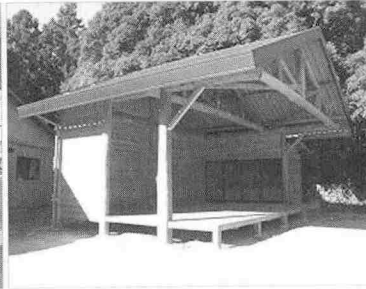
▲ 포장완료 후 트럭을 이용한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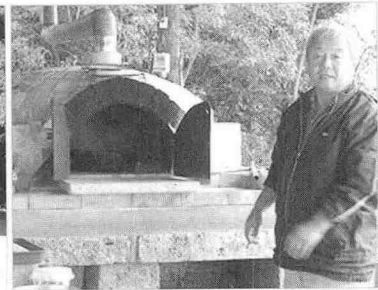
▲ 우사를 개조하여 만든 교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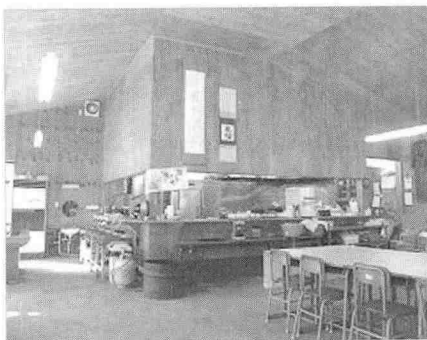
▲ 교류센터내의 체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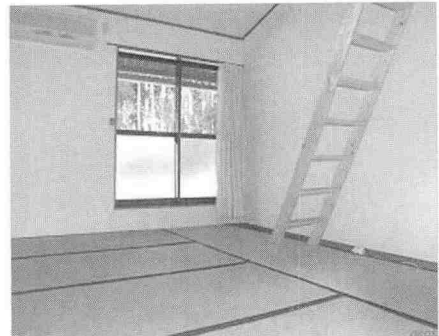
▲ 소규모 공연장



▲ 피자체험 시설 시이나 전 조합장



▲ 교류센터 식당



▲ 교류센터 숙박시설